

첫 출산준비 비디오 교육 '한몫'

가족계획협회, '부부 함께하는 임신부터 출산까지' 제작

우리나라의 모성사망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하게 높지만 출산전 임신부의 건강관리를 알려주는 자료는 극히 부족하다. 최근 대한가족계획협회가 모성보호를 위해 임신을 맞은 부부들을 위한 출산전 준비요령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비디오를 제작해 냈다.

총 50분 분량의 <좋은 엄마가 되는 길> 비디오는 특히 아내 혼자자가 아니라 '부부가 함께' 산전준비를 하는 요령을 강조하고 있다.

△임신 전에 받아두어야 할 검사 △임신중 금해야 할 행동 △임신중 생활기록표 작성 요령 △임신중 금해야 할 식품 △임신중의 성생활 요령 △임신중 권장할 만한 태교법 △출산전 준비해야 할 물품 등을 흥미롭게 드라마로 엮었다.

특히 발목 굽히기, 옆으로 눕기 등 '임신부체조'도 비디오에

담아 임신부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테이프는 각 지방 보건소 병원 산부인과 등을 대상으로 판매하며 개인도 가족계획협회를 통해 4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

비디오 제작을 맡은 가족계획협회 영상교재개발원 이충근씨는 "예전에 만들어진 모자보건 비

의 신비'(46분짜리), '임산부의 건강관리'(47분짜리) 등이 있지만 딱딱하게 설명만 주로 하고 있어 별로 소비자들의 흥미를 끌지 못했다.

결혼한 지 3개월된 김복수(27·서울 관악구 봉천동)씨는 "이런 비디오는 구하기도 힘들고 너무 비싼 게 흠"이라면서 "부부가 함

임신중 태교법등을 드라마로 엮어 지역주민들 공동 구입하면 효과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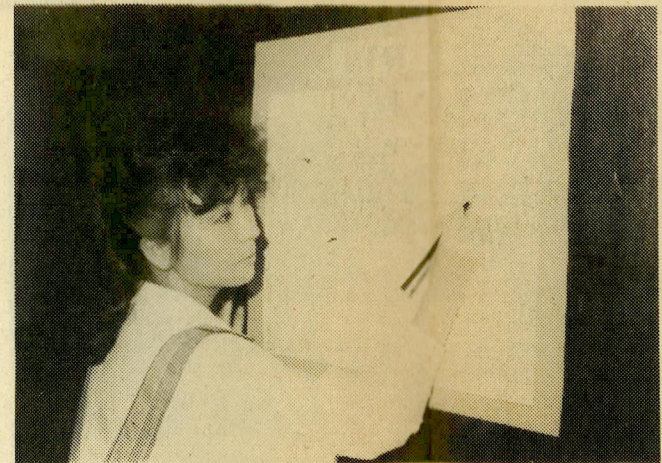
오와는 달리 남편의 출산전 준비 공동참여를 강조했다"면서 "아파트단지나 마을단위별로 구입, 주민이 함께 돌려보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산전관리 내용의 비디오는 동서시청각연구소(279-3096)가 만든 '탄생

게 볼 수 있는 재미있고 다양한 출산관계 비디오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현재까지 임신한 부부들이 출산준비에 참고로 하고 있었던 것은 주로 육아관계 책자로 시내 대형서점에서는 이 책자들을 따로 모은 코너를 찾는 부부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임신·출산·아기의 첫 365일> (주부생활사) <아기백과> (민서출판사) <결혼·임신·태교·출산·육아> (한국교육산업사) <결혼·임신·출산> (유아문화사) <라벨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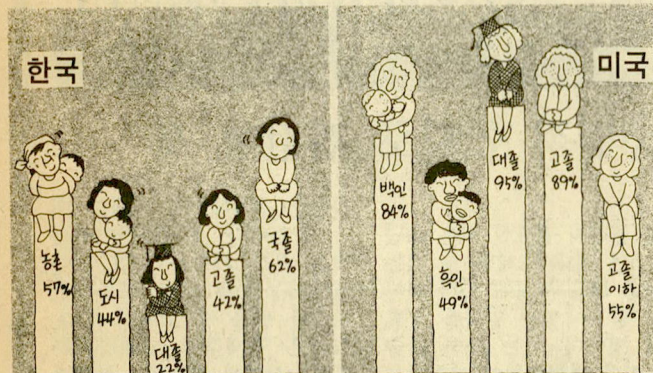
임신부의 건강관리를 위해 월별로 도표로 작성, 점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사진은 비디오의 한 장면.

우리나라의 모성사망률은 88년 현재 10만명당 32명으로 86년 통계인 미국의 7.2명 덴마크의 3.6명 스웨덴의 2.9명 캐나다의 3.0명 일본의 13.5명보다 훨씬 높다. 이 수치는 산모의 산전관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해 주고 있다.

일방적인 인구억제정책에서 모자보건으로 방향을 바꾸어 강화해야 할 가족계획사업에 대한 국가예산이 1백90억원에서 1백10억원으로 대폭 삭감된 것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가족계획협회는 "산전 건강 관리에 대한 책자를 사보기도 힘든 저소득층을 위해 무료로 지역별로 비디오를 대여해 줄 수 있도록 모자복지 차원에서 비디오 보급에 대한 예산이 증액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88년도 한국과 미국의 모유수유율 비교>



모유 먹이기 한국선 줄고 미국에선 늘어
아기 건강·유방암 방지·자궁수축에 좋아

'발암 시비' 자몽 미국서도 말썽

방사선 쬔 공장 건설에 주민들 반발

발암성 농약검출시비로 지난해 한국 등 해외에서 푸대접을 받았던 자몽이 미국내에서도 말썽을 빚고 있다.

국제소비자기구가 최근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에 보내온 자료에 따르면 주산지인

백지화하지 않을 경우 플로리다 산 자몽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겠다"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감귤류 업자들은 자몽 등 수출용 감귤류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됐던 발암농약 에칠 디 부로마이드(EDB)의 사용이 87년 전면금

냈다고 밝혔다.

병원별로 보면 미국은 종합병원 특히 대학병원일수록 더 높은 모유수유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국내 의료기관에서는 규모가 클수록 산모와 신생아를 격리시켜 모유수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또한 의료인은 물론 주위 모든 사람들이 산모가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공공매체에서도 모유의 장점을 홍보·권장해야 하며 유유회 사도 모유가 일차적인 육아방법임을 스스로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illegible][illegible]

세계로, 교실내에서 대학생과 여학생이 함께 수업을 할 때는 심리적 상태를

반면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용하고 학생들을 수업에 끌어들이 수가 있을 것이다.

물론, 기부장제 또는 현재의 성별 물품은 구조가 여성뿐 아니라 남성을 포함한다는 관점에서 강의를 할 필요가 있다. 몇 명의 강사는 이런 관점을 강의 주제마다 적용하여 강의하고자 한 경우 대학생들이 수용하는 경향이 높았다고

문제제기)를 중심으로 하며 수업 중에 혹은 별도로 또 문제를 활성화 하는 방안을 개략해 가는 편이 현재 상황에서 더 현실적일 수 있다. 즉, 이런 수업 방식에 의해서만